군산바다 뽀로로 김, 중국 진출 청신호

삼부자컴퍼니, 중국 산둥신다둥 유한공사와 3년간 240만달러 계약

중국 ㈜산둥신다둥 유한공사의 류번창(柳本昌) 회장 일행이 20일 군산시를 찾아 관내 기업체인 삼부자컴퍼니와 수출계약을 맺었다.

중국 ㈜산둥신다둥 유한공사의 류번창(柳本昌) 회장 일행이 20일 군산시를 찾아 관내 기업체인 삼부자컴퍼니와 수출계약을 맺었다.

중국 수출업체인 삼부자컴퍼니(군산시 평화동 소재)는 관내기업인 (유)바다향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진행해 온 업체로 중국 칭다오 시에 위치한 화쥔그룹 내 유통망을 통해 (유)바다향의 뽀로로 김을 수출하여 군산 조미김의 뛰어난 맛을 중국에 알린바 있다.

올해 2월, 군산시청의 중국사무소는 바이어 매칭을 통해 삼부자컴퍼니와 ㈜산둥신다둥 유한공사를 연결했으며, 4월에는 (유)바다향의 뽀로로 김 400박스를 시범 판매하여 현지 구매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 11월에는 11만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산둥신다둥 유한공사 류번창 회장 일행의 군산방문은 삼부자컴퍼니와 단발성이 아닌 3년간 240만 달러(연간 80만 달러)에 이르는 다년 계약의 성사로 이어져 바다향의 중국 내 2차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대(對)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류번창 회장 일행은 먼저 서수면에 소재한 바다향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군산시청을 방문,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한 부시장은 "군산의 우호도시인 웨이하이 시민들과 함께 군산바다의 맛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지역 청정수역의 상품을 280만 웨이하이 시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 회장은 "가격과 맛이 좋아 중국인들이 한국의 김을 많이 찾는다"며 "군산의 영양만점이며 저염식 뽀로로 김을 시작으로 다양한 종류가 중국식탁에 놓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3년 산동성 웨이하이 시와 우호도시를 맺은 이후 문화, 체육, 인문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2015년 12월에 개소한 군산 옌타이 중국사무소를 통해 다소 경색된 양국정세에도 불구하고 산둥성 내 자매우호도시와의 경제적 협력

다가올 크리스마스, 미리 느껴보세요!

군산시립합창단, 오늘 크리스마스 콘서트

군산시립합창단은 21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92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상임지휘자 박지훈의 지휘 아래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곡들로 준비했으며, 특별히 이웃도시 익산시립합창단이 출연하여 군산시립합창단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다양하고 풍성한 연주회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연주곡으로는 'Silent night', 'Jingle bells rondo', 'El Rorro' 등 귀에 익숙한 다양한 캐럴 곡들과 존 루터의 '글로리아'를 박원선의 오르간 반주로 연주하게 되며, 현재 우리나라와 유럽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성우가 출연하여 매혹적인 선율을 수놓게 될 것이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시립합창단이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곡으로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공연을 즐기고 한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입장 가능하고,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 구입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드림스타트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익산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장·사례·실적에 대한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운영관리, 자원개발·연계 등에 주력해 격년제로 실시한 지난 2015년 평가보다 13점이 오른 87점을 기록했다.

익산드림스타트는 인지·언어 발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기초학력·심리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습향상과 부모-자녀의 애착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복지선진국 우수사례 국외 연수 기회를 얻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익산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 주관 3개 부분에 상을 수상한 것은 지역협력 기관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어린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식량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식량작물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17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식량작물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금 100만원과 사업비 4000만원을 받는 등 군산농업의 위상을 높였다.

군산시는 수출생산 단지와 FTA 대응 벼 생력재배기술보급 단지 등 5개 쌀 생산단지와 지리적특산품인 흰찰쌀보리 자체 채종포, 지리적특산품 단지, 들녘별 국산보리·밀 단지를 운영하여 군산쌀·보리의 품질 고급화와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식량작물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토양종합검정실, 쌀품질분석실, 유해물질분석실 등을 운영하여 과학영농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군산 쌀·보리의 우수성을 이끌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총 6회 수상의 영예로 이어져 군산시가 식량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쌀과 보리의 생산비 절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병해충 발생의 최소화를 실현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개정동, 어려운 이웃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군산시 개정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추위를 녹이고 있다.

개정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석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평소에도 관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는 고석태 위원장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광교회에서도 개정동으로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하며 주위의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펼쳤다.

김형설 개정동장은 "크고 작은 정성과 관심들이 모여 우리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있다"며 "주위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앞장

내년 2월 28일까지 '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홍보캠페인 펼쳐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으로 지정해 '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발굴기간의 운영을 통해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3개월간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적지원 서비스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 보호하며, 공적지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겨울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시에서는 '어려운 이웃 알려주기' 캠페인을 펼쳐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살펴주고 알려줌으로써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도 찾아내어 서비스 혜택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세대 가구소득은 감소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